



'아트제주2022' 미술시장 열기 잇는다

8월 4~7일 롯데호텔 제주서 제주 첫 부스형식 아트페어 국내외 30개 갤러리 참여 제주 작가들 특별전도 마련 '아트 제주 워크' 함께 열려 '온라인 뷰잉룸' 미리보기

올해 6회째를 맞는 '아트제주 2022'는 8월로 시기를 앞당기고 중문관광단지로 장소를 옮기며 최근 뜨거워진 미술시장과 성수기 휴가 시즌에 맞춰 관광객과 도민을 맞이할 계획이다.

'호황'이라는 미술시장 열기가 제주에서도 이어질까.

제주의 대표 아트페어 '아트제주'가 올해 'ART WILL MAKE US DREAM(예술은 우리를 꿈꾸게 할거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8월 4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7일까지 4일간 롯데호텔 제주컨벤션

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가나아트를 비롯해 갤러리 데이지, 브루지예-히가이 갤러리, 비트리 갤러리, 아트웍스파리서울, 갤러리 다운, 토포하우스 등 서울, 파리, 상하이, 대구, 제주 지역에서 총 30개 갤러리가 참가한다.

년대생 등 MZ 세대의 다양성 키워드와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대거 선보인다. 이진용, 이배, 김춘수 등 포스트 단색화 작가들과 베르나르 프리츠, 아야코 로카쿠, 마키 호소카와, 존 버거맨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지금 미술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총 13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와 제주 태생 작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전과 국제 레지던시 가파도 AiR의 올해 입주작가들의 특별전도 마련된다.

또 '아트제주2022'와 함께 제주 전역의 미술관과 박물관, 갤러리와 연계해 만드는 현대미술 축제 주간 '아트 제주 워크'도 열려, 입장권 연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아트제주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출품작을 미리 볼 수 있는 '온라인 뷰잉룸'이 운영되고 있다. 참가 갤러리가 선별한 작품 약 100 점을 먼저 둘러볼 수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작품 문의도 가능해 행사 시작 전 작품을 손쉽게 보고 구입할 수 있다.

'아트제주2022' 입장료는 일반 1만원, 도민 8000원, 청소년/만 65세 이상/장애인/아트제주워크 참여기관 입장권 소지자 5000원,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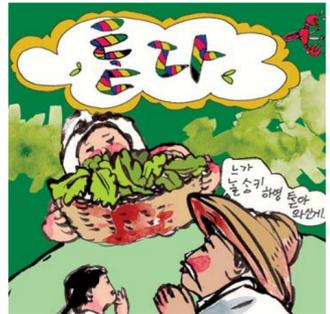
한편, 아트제주는 출범 5년째인 지난해 11월 4일간 개최한 행사에서 관람객 7000여 명, 총 거래규모 25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아트제주 관계자는 올해 거래규모를 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환관

<312>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골맨. "하르바님도 혼자 읊서, 나 막 배고프우다."
준네 골맨, "기여 오맹이야, 하르바님, 이디 펜고이 맞잇서."
하르바지 골맨. "오, 기여, 나가 늘 숭기 하영 툄아 와신게, 오날은 늘 숭기에 밥 하영 먹어질 거 닐다. 오맹이야, 밥 먹영 나가 팽상에 걸레질하라이."
오맹이 골맨. "누님, 밥 잘 먹었수다. 하르바님, 나가 팽상 님우커메 하르바님이 대양에 걸레 물 질어다 줌서야. 생이 눈물만이라도 좋수다."
준네 골맨, "오맹이, 느 야냥게제우는 소리 말양 팽상이나 님우라. 오날은 하르바님이 팽상에서 '가문장야기' 이약일 해주기로 했엇저게."

* 제주어 풀이

- * 툄다(뜯다, 뚫다): <움직> 손부리로 풀이나 나무 잎사귀 따위를 조금씩 뜯다. 땅이 따위를 손끝으로 조금씩 뜯다.
* 혼자 읊서: 어서 오세요. * 펜고이: <어찌> 편하게. 안락하게.
* 맞잇서: 맞았어요. * 먹었수다: 먹었어요.
* 님우커메: 님을께.
* 대양(대영, 증, 징): <이름> 세수대야나 징 따위를 일컫는 말.
* 물 질어다 줌서야: 뽕 물을 길어다 주세요.
* 생이 눈물만이: <익은말> 아주 작은 양을 가리키는 말.
* 야냥게제우다(야냥게제우다, 야냥게제우다, 야냥게제우다, 야냥게제우다): <움직> 어떤 일에 분에 넘치게 자랑하며 거위하기에 뜬다.
* 말양: 말고 * 해주기로 했엇저게: 해주기로 했어.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예술공간 오이, 세월호 추모연극 '카레'

2인극 '엄마와 딸' 이야기 30-8월 21일 매주 토요일 공연

꾸준히 창작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예술공간 오이가 이번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창작 추모연극 '카레' (전혁준 작·연출)로 도민들과 만난다.

예술공간 오이의 마흔두 번째 작품인 '카레'는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평범한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그린 2인극(김경미, 김수민 출연)이다.

예술공간 오이는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엄마, 그리고 엄마 기억에 남아 있는 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다르지 않은 엄마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오는 30일 초연되는 연극 '카레'는 8월 2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7시) 예술공간 오이(제주시 연북로 66)에서 공연된다. 소요 시간 75분.

예술공간 오이는 "그동안 제주 4·3을 주제로 한 창작공연을 만들어왔다. 연극에서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외쳐 나가는 것도 연극하는 사람들의 책임 중 하나라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에서 밝혔다. 이어 "올해에도 제주 4·3을 주제로 창작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잊어선 안 될 기억,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작품을 올리게 됐다"며 "이를 잊지 않는 것도 예술가로서 연극인의 책임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관람가이며, 관람료는 1만 5000원이다.

유네스코 등재 6주년 기념 제주해녀 사진전

사진가 양중훈 20년의 작업 제주해양경찰청 1층 로비서 30일 개막... 12월 10일까지

유네스코 등재 6주년을 기념한 제주 해녀 사진전이 오는 30일부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제주 출신 양중훈 사진가(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 교수)가 제주를 오가며 지난 20년간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됐다.

국내 최초 디지털 패브릭 패널을 활용한, 제주 해녀의 생생한 모습을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몰입형 전시로 꾸며진다. 가로 3.6mx세로 2.4m 크기의 초대형 작품 14점과 12점의 흑백 프린트 작업 등 총 26점이 선보인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해녀 문화의 계승과 보전, 그리고 홍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12월 10일까지 4개



양중훈 작품

월 넘게 진행되는 전시기간 동안 해녀공동체의 가치와 제주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관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관람을 원할 경우 사전 전화예약이 필요하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음악인들이 빚어낸 '4·3 진혼곡'

제주음협, 온라인 발표

제주의 음악인들이 모여 '4·3 진혼곡'을 빚어냈다. 제주의 평화와 안식을 염원하는 이 곡은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오능희)가 오는 8월 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의 화해와 상생의 합동참배 9주년을 맞이하는 평화음악회를 앞두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4·3 진혼곡'은 4·3에 대한 깊은 슬픔을 할머니가 손녀에게 들려주

듯 설명하는 곡이다. 가수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처럼 주고 받는 형식의 곡으로 이뤄졌다.

소프라노 오능희씨와 이예은 양(오페라 2)이 8분여간 들려주는 이 곡은 장영주 아동작가가 작사하고, 이승후 도립서귀포관악단 편곡자가 작곡했다.

피아노에 조안나(도립제주합창단 부반주자), 신시사이저 김혜선(피아니스트), 모듬북 이병준(도립제주교향악단 타악기 상임단원)씨가 참여했다.

오른지기자

취 축 임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장 오형욱 (서귀포시산림조합장)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중소기업서귀포융합회 회장 양문석 외 회원 일동

취 축 임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장 오형욱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군위오씨대동종친회중말파 회장 오용석 외 종친 일동

당 축 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 (본회 고문)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호근동청년회 회장 김용배 외 회원 일동

당 축 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 (본회 고문)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블랙야크 스포츠 동우회 회장 김용배 외 회원 일동